

지역 소식통

고창군, 처음 봄 두릅
본격 출하

고창군이 10일 오후 해리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두릅 출하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출하식에는 삼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NH농협 이문구 고창군지부장,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 생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두릅은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그 향과 식감이 뛰어나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해리농협은 지난해 약 2톤의 두릅을 출하했고 올해는 출하 물량을 확대해 5톤의 두릅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 농협유통 등으로 유통되어 전국의 소비자들의 봄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해리농협은 고창군으로부터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지원을 받아 두릅 선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안군은 오는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전전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대상은 관내 가맹점 2575개소 및 판매점 전대행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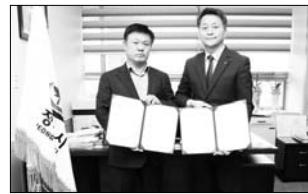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시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숲 가꾸기 산림경영 시범 추진

정읍시-산림조합, 민관 협력형 위탁계약 체결



정읍시와 정읍산림조합이 2023년 숲 가꾸기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위탁계약 체결해 추진한다.

두 기관은 지난 7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숲 가꾸기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봉관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정읍시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조합의 공

공적 기능 강화, 산림사업 추진에 따

른 산림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985ha 규모의 산림에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공익수림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해 시행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숲 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산주 등의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산확보와 인가·허가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처리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와 산림조합이 상호 협력해 영세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조합과 법인의 역할을 나눠 산림사업 경쟁 관계를 완화함으로써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김개남 장군 순국 129주기를 맞아 지난 8일 산외면 동곡리 김개남 묘역에서 김개남 장군 추모제를 가졌다.

승고한 애국정신 계승 발전 다짐

정읍시, 김개남 장군 순국 129주기 추모제 거행

우 부시장과 김봉승 이사장의 추모사와 조현·이현·종현의 순으로 제례가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의 분향과 재배에 이어 음복과 오찬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폭정과 오세와 맞서 싸운 김개남 장군의 승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김형우 부시장은 "세상이 변했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김개남 장군의 정신은 후세의 우리 온전히 받들어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며 "지주 국가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농가·외국인 근로자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성공적 벚꽃축제 격려… 불편사항 보완·개선 후 내년 축제 준비 만전도 당부



이학수 시장이 1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지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다"며 "지역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기적인 고충 상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살피고, 무단 이탈과 사고 예방, 인건비

지급 등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읍 벚꽃축제'에 25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제에서 나온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더 새로운 벚꽃축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종 용역과 관련해 부실 용역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ول러 지역 현안에 대한 부서별 업무공유와 협업을 강조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이동식 푸드트레일러 축제 명물로 자리매김



고창 벚꽃축제 성공의 1등 공신 고창 푸드트레일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푸드트레일러'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먹거리로 관심을 끌고 있다. 푸드 트레일러는 고창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농촌신활용플러스추진단과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가 연계한 사업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들이 고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고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새싹보리떡볶이, 복분자 핫도그, 풍천장어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고창군 벚꽃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푸드 트레일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트레일러 앞에는 MZ세대 위주로 긴 줄이 이어져며 축제장에 활력을 더했다.

트레일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창군 청보리 축제에도 참가해 고창군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은 향후 푸드 트레일러 신규 창업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 로컬푸드 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고창군 청정록 농촌활력과정은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와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속도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앞장'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생활터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를 운영한다.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터를 방문해 기초검진과 함께 영양과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빈혈 등 검진을 통해 본인의 혈관 수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부스 운영 장소는 내장상동과 수성동, 장평동 등 지역 내 8개 동주민센터다. 매월 10일과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기초검진을 통해 발견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자, 대사증후군 유소경자 등에 대해서는 원광대학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연계

해 개인별 전문의 상담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 전원의 검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워크숍,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과 연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사전·사후 변화도를 분석해 지표 개선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소경자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문보건팀(☏ 539-6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